

---

# 2020년 제45호 방송심의보고서

---

2020. 10. 30. ~ 11. 5.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0. 10. 30.	시청률	0.000

## 【총 평】

지역사회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사례는 시의적으로 의미가 있었고, 특히 정부기관을 국민이 직접 찾아 현장 점검하는 ‘국민참여진단’ 소식은 ‘열린 행정’이 무엇인지 잘 느낄 수 있었다. 고용센터 민원 업무 급증…"보완책 필요"와 환경부 수질·미세먼지 정책…국민 눈높이로 진단은 국민참여점검단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민원현장을 점검한 기획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민원행정 처리와 개선점, 피드백을 볼 수 있었다. 국민리포트다운 특징이 느껴지는 취재 아이템이 많았고 또한 국민기자다운 시각이 잘 드러났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특히 작지만 의미 있는 소재를 찾아내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로 만들어낸 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 【구성 및 내용】

국민참여점검단의 현장점검, 코로나도 막을 수 없는 외국의 한글교사의 비대면 연수, 춘천시에서 시행하는 시민 건강을 챙기는 어플, 집에서의 은둔생활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 예술과 결합하여 갤러리로 변한 강남의 가구거리, 어린이의 벼 수확 체험 등으로 구성했다.

### ■ 고용센터 민원 업무 급증, "보완책 필요"

국민참여점검단이 고용복지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업훈련비용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모성보호급여지원의 제도 운영을 점검했다. 국민점검단은 효율적 민원대응을 위해 상담업무의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홍보강화를 요청하고 상담 방법의 효율적 보완과 상담내용의 간소화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 ■ 환경부 수질·미세먼지 정책, 국민 눈높이로 진단

환경부 국민참여점검단이 국립환경과학원을 현장점검하고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대상이 아닌 소규모 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 등의 관리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다.

### ■ 쇼윈도 예술을 입다, 갤러리로 변한 강남 가구거리

서울 강남의 한 가구거리가 갤러리로 변모했다. 700명이 넘는 작가들의 1,625점의 작품이 출품되었고 야간에는 쇼윈도 재즈 공연이 이뤄지고 있다. 구청과 가구점 주인들이 무너진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힘을 합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 있었다.

### ■ 어린이 벼 베기 체험, 쌀의 소중함 배워

전남 강진의 한 농촌마을에 수확체험을 위해 강진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문해 직접 낫을 쥐고 벼 베기 체험을 진행했다. 특히, 농촌의 어른들이 탈곡시범에 따라 어린이들이 들녘에서 벼를 베고 탈곡을 한 뒤 그 쌀로 떡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프로그램	톡톡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0. 10. 30.	시청률	0.000

### 【총 평】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2021 예산안 주요 내용과 전망은?”은 내년 555조 8천 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고 예산안 통과를 위한 국회 이해와 협조를 요청한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운영을 잘 담아냈다.

전체적인 구성은 ‘2021 예산안 주요 내용과 전망’과 관련 내년도 우리 경제 운영의 큰 방향부터 일자리 창출, 수출 지원, 한국판 뉴딜 정책 지원을 위한 세부내역을 살폈다. 또, 용안전망 구축, 미래 신기술분야 투자, 국민의 주거안정 등 주요 예산처를 정리했다.

### 【구성 및 내용】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밝힌 내년 예산 555조여 원의 핵심과 내년 국정운영 방향을 살펴보고 연설에 녹아있는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이었다.

문대통령은 국정운영 방안을 밝히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방역과 경제를 동반시키기 위해 한국판 뉴딜과 미래성장동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빠르게 잘 하면서 예산을 만들어서 잘 집행을 하게 되면 선도국가로 나갈 수 있을 비전을 제시해 정부의 추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위기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으로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2021년 200만개 이상 일자리 유지와 창출을 목표로 고용유지 지원금 46만명 일자리 지키기,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 57만개 민간 일자리 창출, 고용 취약계층 103만개 직접 일자리 창출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 활동지원금 및 취업지원을 제도를 전국민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수출회복을 위해 자동차, 반도체 등을 비롯해 K-방역 제품, 바이오, 비대면 유망품목 문화콘텐츠의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댐 구축, 교육, 의료 등 비대면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또,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재난 재해 예방관리 강화와 지능형 교통체계를 전국 도로의 50%로 확대 구축하는 예산을 편성해 디지털 뉴딜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국정 방향을 제시했다.

그린 뉴딜의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선언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발생한 만큼 제로화 시키는 것으로 미래성장동력의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4대 사회안전망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기초 연금 30만원 지원 수급대상 모든 어르신께 확대한다. 또, 건강보험, 요양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알뜰신잡은 혈관질환의 일환인 이상지질혈증의 환자 추이부터 주요 원인, 예방법과 좋은 음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 소리		
방송일자	2020. 10. 31.	시청률	0.059

### 【총 평】

‘내면을 일깨우는 태고의 울림’은 신라시대 창건된 고찰 용문사를 배경으로 자연의 소리와 함께 하늘의 소리이자 심장의 소리인 북소리, 법고의 울림을 담아냈다. 가을하면 떠오르는 은행나무로 유명한 산사인 용문사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과 템플스테이를 통해 나를 찾고 돌아보는 명상의 시간을 전해주었다. 새소리, 시냇물 소리, 발자국 소리, 범종소리, 북소리, 모닥불 소리, 대패소리, 빗자루로 낙엽 쓰는 소리, 웃음소리 등 자연의 생생한 소리와 인간이 덧붙인 소리가 절묘한 호흡이 돋보였다.

판소리 국악인의 용문사 템플스테이를 통한 사찰 일박 경험을 통해 스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인상적이었고 모닥불 옆에서 처연하게 부른 창이 백미였다. 또, 장인의 법고 제작과정, 그리고 화룡정점으로 법고의 깊은 울림이 담긴 소리를 전해주었다.

### 【구성 및 내용】

판소리 국악인 장소윤씨가 경기도 양평군 용문사를 찾아 내면을 사색하며, 곳곳을 다니며 특징적인 것을 소개하여 장소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사람들의 템플스테이에 대한 소개와 함께 사찰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용문사 곳곳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해가 지면 절 곳곳의 소리가 더욱 선명해진다. 템플스테이의 참가자들이 산사의 밤을 여는 소리를 직접 울려보기 위해 대종으로 모였다. 모닥불을 피우고 스님과 담소를 나누는 내용은 삶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하는 부분은 템플 스테이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술한 번뇌의 시름을 잠시 내려놓고 말보다 더 깊은 침묵의 위안을 얻어가기 위해 많은 이들이 사찰에서의 하룻밤을 선택한다.

사찰스님들이 몸을 직접 움직이며 일을 하는 것은 수행의 일부로 아침부터 절 곳곳을 비질을 통해 깔끔하게 단장한다. 스님과 함께 비질을 하는 것은 수행의 의미로 인상적이었고 산사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는 과정까지 담아냈다.

청와대 앞 문민고 등, 전통악기인 북을 만들어 온지 2대째인 윤종국씨는 북소리가 침체된 사람을 활발하고 활동적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늘의 소리이며 심장의 소리라고 생각한다. 일일이 손으로 만들어내는 북은 지극정성으로 수없이 어루만져 주어야 하며, 그렇게 땀과 정성을 쏟으면 북도 좋은 소리로 보답한다. 이 밖에 가업을 잇는 악기장의 전통북 만드는 과정이 소개돼 스토리의 가치를 높였고 나무 조각으로 북 테두리 만들기, 가죽 늘이기, 단청 꾸미기 과정 등이 소개됐다.

“가장 좋은 치유는 혼자 내버려두는 것이다.”, “천근같던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졌다”, “잡생각이 서서히 없어진다”, “장작을 지그재그로 놓아야 산소 공급이 잘돼 잘 탄다. 우리 인생도 여백이 필요하다.” 등 선문답 같은 그러나 인생과 자연을 관조하는 듯한 이야기 하나 하나가 깊은 의미로 다가왔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10. 31.	시청률	0.028

### 【총 평】

‘나우북(NOW 北)’에서는 “바이든 ‘단계적 비핵화 만남’ 여지 켜다. 북한의 선택은?”과 북한의 선호 색깔이 무채색에서 핑크로 변화중이라는 “북한, 올 가을 패션은 핑크가 대세”를 소개했다. ‘단박톡’은 북한의 축산공무원 출신 수의축산전문가와 ‘남북 보건 의료 협력 필요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시청자들에게 남북 협력에 대한 시각을 넓혀 주었다.

‘나우북’에서는 미 대선 후보들의 선거 토론회에서 북한 관련 언급만을 골라 두 후보의 대북 정책을 비교해 보고, 특히 바이든 후보의 언급 중 북한에 대한 태도가 조금은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었다.

### 【구성 및 내용】

전체적인 구성은 미 대선토론 중 나온 북한에 관한 언급을 통해 바이든 후보의 북한 정책에 대한 입장 변화를 예상해보았고, 올 가을 북한 최신 패션 트렌드에 관해 알아봤다. 또, 북한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 실태와 남북 보건의료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대북 정책에서 강경파로 소문난 바이든 후보는 지난 22일, 미국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외교안보 논점으로 떠오른 북핵문제를 토론했다가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핵능력 축소를 언급해 알려진 것보다는 북미대화에 유연할 수도 있다는 예측을 내놨다. ‘나우북’에서는 3분 50초 정도 언급된 관련 내용을 집중 분석해 시청자들에게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 측 의중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북한에 부는 핑크빛 유행을 짚어봤는데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밝은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김정은 정권의 변화시도를 엿볼 수 있었다.

‘단박톡’은 북한 평안남도 축산공무원 출신 수의축산전문가와 북한 축산 공무원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북한에서도 동물 전염병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지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북한을 괴롭히는 동물 전염병은 약 340여종으로 남북 방역 필요성과 차단 효과와 우리 정부의 방역 협력 제안에 북한이 묵묵부답인 이유 등을 알아보았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으로 인한 북한의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북한의 열악한 방역 수준을 감안한다면 남북한이 협력하면 방역에 상당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 야생 멧돼지들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전파 가능성을 언급하고 북한에서는 현재 자돼지를 구매하기조차 어렵다는 내용까지 덧붙여 더욱 북한 축산업의 위기를 실감나게 전달했다.

특히,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 계기는 방역과 보건 의료 협력으로 모든 협력을 남북 관계로 귀착 시키지 말고 그 자체로 협력하는 전략을 세워야 하고 우리의 협력 접근과 북한 대처 안 간의 거리 좁히는 방법이 필요함을 담았다. 의료·보건 협력의 경우 남북한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에 초점이 맞춰야지 남북협력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실패하기 쉬울 것이라는 지적이 돋보였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0. 11. 1.	시청률	0.000

### 【총 평】

<PD 리포트 이슈 본> 제317회는 지난 10월 8일 오후 울산시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에서 보여준 ‘성숙된 시민의식’, “위기 속에서 빛난 ‘우리’의 힘”을 방송했다. 울산시 주상복합건물 대형 화재와 관련하여 당시 현장 상황, 구조 현장 증언, 강풍과 장시간 화재에도 인명피해 없었던 이유, 소방관과 지역민 그리고 화재 건물 거주자들의 협동 작전으로 빛난 구조 미담사례, 정부 정책과 건설업자 그리고 소방관과 주민들에게 남은 과제 등 대형 화재 대응 후일담을 꼼꼼하게 소개했다. 특히 화재 현장에서의 구조 미담 사례는 울산 시민들의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이웃에 대한 인식 생태계를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 【구성 및 내용】

울산시의 주상복합건물에서 일어난 화재 당시의 상황을 시간대 별로 정리해 이해하기 좋았다. 신고 접수 5분후 소방차가 출동 도착하여 화재진압에 나섰고 강풍으로 인한 알루미늄 패널이 불길을 부채질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소방대원의 판단력과 책임감 등이 빛났다. 특히, 대연각 호텔 화재 당시 163명이 희생당한 것을 생각하면 이번 울산 화재의 사망자 0명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낸 원인인 헌신적인 소방관들의 노력, 빛나는 시민의식, 입주민들의 영웅적인 구조 활동을 생생하게 소개해 훈훈한 감동을 주었다.

휴대전화의 시계를 비추면서 당시 화재가 발생한 지점부터 시작을 해서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고 바로 옆에서 지켜본 인근 상가 주민들의 인터뷰도 아주 생생해서 자연스럽게 화재 당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다. 사고 당시 기상 악조건이나 장비의 부족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었던 부분도 가감 없이 언급해서 후반에 또 다른 과제를 지적하기도 했는데 초반에는 이 상황 설명마저도 위기의 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게 움직여서 인명 피해를 줄였는지를 부각시키는 장치가 되었다.

첫 화재 신고부터 거슬러 올라가 바로 소방관들이 출동하고 당시 무전 상황이나 브리핑 장면도 차례로 준비하여 상당히 긴박감 있게 연출이 잘 되었고 고가 사다리차 부족으로 소방관들이 직접 현장에 투입되어 이루어진 구조 작업이 무척 위험천만하게 느껴졌다. 당시 사건을 재연하고 어떻게 구조를 하게 되었는지 상세히 설명이 되어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긴장감을 조성했다. 그 사연중에는 임신부와 아이를 구조한 이야기며 자신의 장비에 여성까지 업고 수십 층을 계단으로 내려온 이야기, 구조자들이 소방관에게 현장에겐 건넨 한 마디 등 들으면 들을수록 당시의 상황이 무척 긴박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고 이번 사고에 소방대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었다.

이후에는 임시 숙소에 붙여둔 소방대원들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가 빠르게 붙여진 벽을 클로즈업하면서 입주민들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주었다.

프로그램	밥보다 법		
방송일자	2020. 11. 1.	시청률	0.000

### 【총 평】

<밥보다 법> 제10회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는 경제난을 맞아 개인간 채권 채무는 물론 회사의 임금 체불 처리 등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채무 이행과 관련해 흔히 문제가 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돈을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기본적인 대처방법부터 법적 지식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특히, 채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의 중요성 그리고 사전에 취할 수 있는 안전장치 즉 부동산근저당설정의 필요성에 대해 놓치지 않고 언급한 점도 좋았다. 또한, 채권소멸시효와 가압류 그리고 체당금제도 등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용어들을 알기 쉽게 풀어 전달한 점도 좋았다.

<무엇이든 물어볼 법>에서 배달음식 앱에서 솔직한 후기를 작성한 것이 명예훼손에 적용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으며, 비방의 목적이냐 반복성 등 명예훼손에서 핵심이 되는 사항을 소개해 주의할 수 있게 했다.

### 【구성 및 내용】

돈은 빌려주는 쉽지만 돌려받기는 어렵다. 이렇게 돈을 떼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오늘은 법적 절차와 방법을 알아보았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깐 이렇게 하라고 하는 식의 설명보다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소개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에 대해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여 ‘떼인 돈 돌려받기’ 친절한 지침서가 되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증거를 만들어야 하며,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 가압류를 걸어놓아야 승소 후 돈을 받을 수 있다. 채무자나 채무자 이외의 사람들에게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보면 좋다.

지인 간 거래에서 원금은 돌려받았는데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서 상대방이 이자에 대해 알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면 받을 수 있겠지만 이자를 약정한 증거가 없을 경우 받을 수 없다.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여 퇴사 이후 노동고용청에 진정을 넣었지만 사업주가 임금지불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해당 진정·고소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이후 피해자가 취소가 가능하므로 사업주의 돈 지급 약속을 이끌어내기 쉽다. 한편 회사가 임금을 줄 여력이 안 될 경우, 이를 증명하고 국가에 신청하면 일부 대신 지불해주는 체당금 제도가 존재한다.

법률상담에서 외상 장부를 사용해 식대를 업체에서 후불로 지급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업체가 4~5개월분의 밀린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답변했다. 일반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일반 소비생활 채권, 즉 식당, 옷가게 등의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로서 1년이다. 즉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11. 1.	시청률	0.056

### 【총 평】

살어리랏다 제6회는 부드러운 미소와 정으로 캠핑장을 운영하며 인생 2막을 열고 있는 귀농 10년 차 부부의 수수함과 특별함이 잘 묻어난 “자연이 좋아 사람이 좋아 캠핑장을 열었습니다.”를 방송했다. 특히, 있는 것을 내놓으면서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하는 캠핑장 운영과 욕심부리지 않고 현실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이치임을 알려주었다.

여수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그곳에서 노년을 보내는 소소한 부부의 모습들, 그리고 오랜만에 찾아온 가족과 친구와의 만남 등으로 구성해 시청일관 평온하고 아름다웠다. 특히 여수의 일몰이 아름답게 화면에 담겨 오랫동안 큰 여운을 주었다.

### 【구성 및 내용】

평일에는 농부로, 주말에는 캠핑지기로 살아가는 귀농 10년 차 부부의 일상을 잔잔하게 그려냈다. 손님들이 찾아온 캠핑장의 이모저모를 살피고 준비해주는 캠핑지기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손님들이 다 돌아간 뒤 둘만의 캠핑, 그리고 친구와 가족들이 찾아와 소소한 파티를 즐기는 모습까지 담아냈다. 특히, 손님을 맞이 전에도 고구마 캐는 장면이 공개되었고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도 손님들을 위해 들깨잎도 정리하고 하는 농부로서의 모습도 간간히 공개가 되어 좋았다.

평일에는 부부만의 캠핑을 즐기거나 친구를 초대해서 소소한 파티를 즐기는 모습 등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부럽기 그지없는 풍경들의 연속이었다. 아내의 생일에 며느리와 손주들이 찾아와 생일 축하를 하는 모습도 아주 훈훈하게 잘 그려졌고 생일 선물로 편지와 들꽃을 선물하는 남편의 모습에 사랑이 넘쳐서 기억에 남았다.

‘배움은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청춘이다’, ‘노력한 만큼 대가가 오는 것이 인생이다’등 치열하게 살아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들이어서 와닿았다.

지금의 캠핑장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생활을 책임진 아내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아내가 좋아하는 황토방 짓기에 나섰다. 색소폰을 부는 주인공, 색소폰 뿐 아니라 건반에 오토바이까지 평범하다면서 하는 것 많은 로맨티스트였다.

아내와 오랜만에 여수 인근으로 바이크 타고 나들이를 나가서 여수 앞바다의 일몰을 감상하며 남은 인생에 대한 소신을 밝히면서 잔잔하게 마무리했다. 노년을 풍요롭게 즐기는 부부의 모습이 소개되어 더 여운을 남겼다. 주인공의 친절함에 반해 단골고객들이 많은데, 손님 한사람을 한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백 사람 이백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주인공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다.

남해안 바닷가를 주변의 수려한 풍경이 시청재미를 더했고, 화양면 고봉산에서 보는 바닷가 풍경과 여수에서 고향을 잇는 다리를 배경으로 한 풍경은 압권이었다. 또, 주인공의 생활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구성해 시청하기 편했다.



프로그램	슬기로운 취업생활 일자리센터		
방송일자	2020. 11. 1.	시청률	0.017

### 【총 평】

현대 사회에서 제품 용기 디자인은 소비자에게 중요한 결정 요소중 하나이다. ‘제품이 첫 인상을 결정한다-패키지 디자이너’는 최근 인기를 모으며 전망이 밝은 패키지 디자이너의 역할에 대해 소개하고 실제 일과에 있어서도 상품 확인과 포장디자인, 샘플제작, 박스 제작공장의 방문, 시제품의 적재과정까지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또, 급여, 복지 등 직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취업준비생에게 유용한 정보가 됐다.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IT업계 대표의 고졸채용제도 유지를 약속하는 협약식 소식은 고졸 취업준생들을 고무시키는 희소식이었다. 특히, ‘화상 모의면접’은 회사대표가 바라는 인재상, 지원자의 답변에 대한 평가, 선배의 경험에 따른 조언 등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 【구성 및 내용】

패키지 디자이너는 제품의 다양한 면을 고려하여 포장의 세부적인 디자인 등을 고민하고 결정한다. 포장 디자인은 브랜드의 첫인상으로서 브랜드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이는 구매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심리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AI로 대체되기도 어려울 것이다.

선배의 하루에서는 취업한지 1년 반이 되는 선배의 하루를 돌아보았는데 취업선배는 포장 박스와 설명서 제작, 홍보물 편집 및 디자인을 담당한다. 또, 시제품이 나올 경우 제품 테스트를 진행하고 각 상품에 맞는 형태의 박스 디자인을 고민한다. 재질부터 규격, 그리고 상품의 보호까지 생각하는 작업이다. 제품을 직접 확인하고 난 뒤에는 사무실에서 샘플을 여러 개 제작하여 최종회의를 시작한다. 그리고 양산 전 실제 포장박스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공장 현장을 방문하여 시제품을 검토하고 실제 상품이 포장박스에 포장되고 적재되는 상황까지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구성의 흐름은 큰 틀에서 볼 때 매회 차이가 없으나 하나하나 뜯어보면 긍정적인 변화가 보인다. 특히 ‘달려라 신입사원’에서 하고 있는 셀프 카메라 방식은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 전에 없던 짜임새가 느껴진다. 그리고 ‘화상면접’에선 면접하는 학생을 응원하는 선생과 화상인터뷰를 했는데 분위기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패키지 디자이너가 전한 “패키지가 브랜드다”, “정답이 없는 작업이다”라는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는데 직종의 특성을 잘 대변해주는 표현이었다. 또, 회사대표가 인문학적인 접근이 중요하고 아울러 소양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이야기는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부와 이스트소프트의 협약체결 현장에서 화상면접을 앞둔 학생들이 궁금한 점을 묻고 교육부 장관이 답하는 상황, 그리고 회사 대표의 조언을 담은 인서트가 나갔는데 희망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다.